

## 유가에서 노래한 봉화의 사찰

-청량사, 축서사, 각화사를 중심으로-

황 만 기\*

- I. 머리말
- II. 독서의 공간 淸涼寺
- III. 강학의 공간 鷺棲寺
- IV. 수양과 수계의 공간 覺華寺
- V. 나오는 말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현존하는 봉화의 사찰 가운데 淸涼寺, 鷺棲寺, 覺華寺를 중심으로 불교 공간인 사찰이 유가 공간으로써 어떤 양상을 띠게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유학자들은 이들 세 공간을 유람하면서 이를 내면화하여 생각을 정리한 뒤에 한시라는 문학 장르를 통해 노래로 승화하였다. 이런 현상은 조선 중기 이후부터 구한말까지 지속되어 나타났고, 지식인들은 불가의 공간을 유가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하여 불교적 수행·의례의 공간인 사찰이, 지역 사대부와 사족들에게 독서·강학·수양·修禊 등의 방식으로 향유되는 양상을 띠게 되

---

\* 국립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연구교수 / sino5360@hanmail.net

었다.

청량사는 청량산의 많은 사찰이나 암자 가운데 현존하는 유일의 사찰이자 대표적인 불교 공간이었다. 한국 유학사의 종장인 退溪 李滉이 청량산에서 독서한 이후로 새로운 이미지로 부각되어 영남지역 문인 학자 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학자들은 한 번쯤 다녀가고 싶은 성지가 되었다. 이때 이황이 남긴 시문은 직전 제자뿐만 아니라, 안동 유림 더 나아가 영남 유림의 관심사가 되어 반드시 이곳에 들러 차운시를 남기게 된다. 축서사는 17세기 봉화의 문장가로 널리 알려진 川成四老와 18세기 영남 문학의 종장으로 추앙되었던 訥隱 李光庭이 이곳에서 文會를 열어 당시의 문하생들에게 커다란 경험과 학문적 깊이를 더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던 공간이다. 각화사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한 태백산사고지를 수호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곳은 매우 신성시되었고 조선시대 유학자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곳이기도 하다. 西厓 柳成龍은 이곳에서 수양하였고, 蒼雪齋 權斗經은 환갑년에 이곳에서 벗들과 수계를 하기도 하였다. 세 사찰 모두 독서와 강학 공간으로 활용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각화사의 경우 한시 작품 수에 있어서는 청량사나 축서사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독서와 강학과 관련한 작품은 확인하지 못하였기에 수양과 수계에 관한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 주제어

봉화, 사찰, 청량사, 축서사, 각화사, 천성사로

## I. 머리말

사찰은 불교가 유입된 이후 기본적으로 승려들이 수도하는 도량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그 개념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런데 조선 개국 이후 송유억불 정책이 이루어짐에 따라 불교의 역할이 위축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찰은 대부분 고요한 산속에 위치하여 정숙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유학자들이 개인적으로나 그룹을 형성하여 학문을 익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웃에 있는 안동 봉정사의 경우 조선 유학의 집대성자인 퇴계 이황이 16세에 이곳에서 학업을 익힌 뒤로는 독서와 강학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었고, 문인들의 문집을 발간하는 일도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유학자들이 사찰에서 학업을 익히거나 강학 활동을 전개함으로 인하여 사찰은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공간이나 승려들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서 유학자들의 학문 공간으로 활용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말하자면 불교 문화가 지배적이던 공간이 유학자들이 머무름으로 인하여 유교 문화의 속성도 지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봉화군 소재 사찰의 경우 종단별로 조계종, 법화종 등 15개의 종단이 있으며, 이 가운데 11개의 사찰이 소속된 법화종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7개의 사찰이 소속된 조계종이다. 조계종에 속한 7개의 사찰은 중대사, 성불사, 축서사, 지림사, 각화사, 홍제사, 청량사이다.<sup>1)</sup>

이 가운데 유학자들이 독서와 강학, 수양과 수계 공간으로 활용한 곳은 청량사, 각화사, 축서사이다. 본고에서는 현존하는 이 세 사찰을 중심으로 조선 중기부터 구한말까지 불교 공간인 사찰이 유가 공간으로서 어떤 양상을 띠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청량산은 신재 주세붕이 육육봉 명칭을 붙이고 한국 유학사의 종장인 퇴계 이황의 유람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로 부각되었다.

1) 김현숙(2003), 「봉화군 소재 불교사원의 지역적 기능」, 『영남학』 제4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124쪽 참조.

영남지역 문인 학자 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학자들은 한 번쯤 다녀가고픈 성지가 되었다. 이때 이황이 남긴 시문은 직전 제자뿐만 아니라, 안동 유림 더 나아가 영남 유림의 관심사가 되어 반드시 이곳에 들러 차운시를 남기게 된다. 특히 봉화의 대표적 사찰의 하나인 청량사를 노래한 시편이 끊임없이 양산되었다. 이와 관련된 한시 작품들은 그 숫자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문헌상에 등록된 작품을 바탕으로 그 작품이 가지는 의미와 또 작품이 창작된 연대와 배경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 봉화의 사찰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驚棲寺이다. 축서사는 그 이름에 있어서 취서사라 부르기도 한다. 독수리가 머물렀던 사찰로서 봉화의 대표적 사찰 중의 하나이다. 17세기 봉화의 문장가로 널리 알려진 川成四老와 18세기 영남 문학의 종장으로 추앙되었던 늙은 이광정이 이곳에서 문회를 열어 당시의 문하생들에게 커다란 경험과 학문적 깊이를 더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던 곳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찰은 覺華寺이다. 각화사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한 태백산사고지를 수호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곳은 매우 신성시되었고 조선시대 유학자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곳이기도 하다. 이곳도 독서와 강학으로 활용된 기록은 있으나 한시 작품으로 노래한 경우는 아직까지 포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각화사는 수양과 수계와 관련된 한시 작품들을 중심으로 유교 문화의 속성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 II. 독서의 공간 淸涼寺

현재의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에 위치하는 청량산은 조선시대에는 안동부 속현인 재산현에 속했으며, 그 명칭을 水山 또는 文華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청량산은 고대 이래로 신라의 원효·의상·김생 등이 이곳을 찾은 설화들이 많이 발생하여 불교의 요람을 형성하였고, 조선 중기 퇴계 이황이 이곳을 방문한 이후에는 유학자들의 성지순례공간으로 인식하면서 불교와 유교 문화가 공존하게 되었다. 청량산을

찾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는 한편 역사·문화유산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며 이를 시문 속에 오롯이 노래하였다. 청량산을 노래한 관련 시문은 13세기부터 20세기까지 끊임없이 생산되었으며, 대부분 16세기 이후 周世鵬이 12봉우리를 명명하고 李滉이 이곳에서 많은 시문을 짓거나 독서와 講學을 하였기 때문에 이후 이 산은 성지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청량산에는 연대사, 청량암, 치원암, 김생암, 극일암 등 모두 33개의 크고 작은 사찰이 있었는데,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현존하는 청량사의 유리보전에 대해서 다루기로 한다. 이 사찰은 예전에 연대사 부속 건물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연대사는 당시 20여 개의 암자를 거느렸던 제법 큰 사찰이었다. 창건연대는 663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다. 유리보전의 현판 글씨는 공민왕의 친필로 전해지며, 약사여래좌상과 목조지장보살삼존상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sup>2)</sup>

먼저 청량산 12봉우리를 명명한 愼齋 周世鵬(1495~1554)이 청량사를 노래한 시이다.

欲問清涼勝	청량산의 승경을 묻고자 하니
天開寶塔形	하늘이 보탑의 형상을 열어 놓았네
城霞標白晝	성의 노을이 대낮에도 걸려 있고
巖溜瀉青冥	바위 샘물이 하늘에서 쏟아지네
危磴僧行慣	험준한 돌길을 승려가 익숙하게 다니고
高松鶴夢醒	높은 소나무엔 학이 졸다가 깨네
孤雲嘉遯古	옛날에 고운이 은거한 일을 가상히 여겨
一酌慰英靈 <sup>3)</sup>	한잔 술을 올려 영령을 위로하네

위 인용시는 주세붕이 1544년 4월 12일 초여름에 청량사를 방문하여 읊은 것이다. 주세붕은 청량사 앞의 탑을 보고 하늘이 열어준 것이라고 노래하였다. 그다지 높지 않은 산이지만 대낮에 햇빛을 받은 운무가 저

2) 청량산박물관 엮음, 『청량산, 역사와 문화를 담다』, 2017, 66~69쪽 참조.

3) 周世鵬, 『武陵雜稿』 권3 <清涼寺>.

녁노을처럼 붉은빛을 띠고 있음을 3구에서 노래하였고, 4구에서는 바위에서 떨어지는 샘물을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과장하여 노래하였다. 5구와 6구는 돌길이 험한 산길도 승려는 평지처럼 익숙하게 걸어다니고 높은 소나무 위의 학은 한참 동안 앉았다가 날아가는 모습을 잠시 졸다가 깨어난 것처럼 정감 어린 시선으로 노래하고 있다. 청량산에는 치원암, 치원대 등이 있다. 이는 신라의 유학자 최치원이 이곳을 다녀간 것으로 인식하여 이름 붙여진 것이다. 그래서 주세붕은 한 잔 술을 올려 최치원의 영혼을 위로하고 있다.

이황은 1515년 봄에 숙부 松齋 李堦를 모시고 청량산 上淸涼庵 즉 淸涼寺에 머물렀다. 그리고 언제인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조카와 손자들과 함께 청량사에 왔다. 이때의 북반치는 감회를 아래와 같이 노래하였다.

淸涼寺裏憶陪遊	상청량암에서 모시고 놀던 때를 떠올리니
卅角如今雪滿頭	당시의 총각이 지금은 백발이 되었네
鶴背幾看陵谷變	학을 타고 산천 변화를 몇 번이나 보았나
遺詩三復涕橫流 <sup>4)</sup>	남긴 시를 다시 보니 눈물이 흐르네

이황은 총각 시절인 1515년에 송재 이우와 함께 청량사에 머물렀다. 이때 지은 이우의 시를 40년이 지나서 다시 보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래서 조카와 손자를 보며 시를 남긴 것이다. 이황은 청량산을 吾家山이라 하였고 스스로를 淸涼山人이라 부를 정도로 매우 의미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청량산은 숙부가 먼저 독서의 공간으로 인식하여 사위와 조카 李滢(1496~1550)를 공부하게 하였다.<sup>5)</sup> 이어지는 시를 살펴보자.

4) 李滢, 『退溪集』 권2, <住在乙亥春 叔父松齋先生遊山 寓上淸涼庵 滢與諸兄弟侍 今來不勝感涕 示諸姪孫> 2수 중 첫 번째.

5) 李堦, 『松齋集』 권2, <送曹吳兩郎與滢輩 讀書淸涼山>.

重尋惟覺我爲人	다시 와서 나의 사람됨을 깨닫게 되니
流水桃花幾度春	물결에 복사꽃 떠내려가는 봄을 몇 번이나 보냈나
汝輩他年知我感	너희들도 훗날에 내 감정을 알리라
當時同汝少年身 <sup>6)</sup>	당시엔 나도 너희처럼 젊었으니

백발의 이황이 젊은 날을 회고하고 있다. 그래서 조카와 손자에게 훗날 너희들이 나처럼 백발의 나이가 되면 지금의 내 슬픈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한편 이황은 龔巖 李賢輔의 조카인 李國樑이 청량사에서 독서한다는 말을 듣고 기뻐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주었다.

…(省略)…	
碧窓味道偏宜靜	푸른 창에서의 도를 음미함은 고요함이 더욱 마땅하고
黃卷尋人最在閒	책 속에서 사람을 찾음은 가장 한가할 때에 있다네
若使箇中眞得樂	만일 그 속에서 참다운 즐거움을 얻게 된다면
一匡應不羨齊桓 <sup>7)</sup>	한 번 천하를 제패한 제나라 환공에 부럽지 않으리라

李國樑(1517~1554)은 이현보의 아우 李賢俊의 아들이다. 자가 庇遠, 호가 暘谷堂이다. 趙穆, 權好文, 金富倫, 吳守盈, 琴輔, 琴蘭秀 등과 친밀하게 지냈다. 이국량은 풍기와 단양의 아전을 지내다가 갑자기 이곳 청량산에 들어와 독서하였다. 이황은 독서의 전제조건을 靜과 閒에 두고 있다. 고요한 환경조건이 구비된 뒤에야 도의 의미를 제대로 맛볼 수 있으며, 또 한가한 때에야 책 속에서 聖賢의 말씀을 찾을 수 있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고요한 청량사에서 독서하는 즐거움은 齊나라 桓公이 管仲을 등용하여 천하를 바로잡아 제후의 覇者가 된 것에 부럽지 않다는 말을 건네면서 독서가 천하에 왕노릇하는 것보다 낫다고 여기고 있다. 이는 맹자가 君子三樂을 언급하면서 천하의 왕노릇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은

6) 李滉, 『退溪集』 권2, <住在乙亥春 叔父松齋先生遊山 寓上清涼庵 滉與諸兄弟侍 今來不勝感涕 示諸姪孫> 2수 중 두 번째.

7) 李滉, 『退溪集 外集』 卷1, <次韻李庇遠見寄> 5수 중 세 번째.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權好文(1532~1587)은 그의 나이 20세인 1551년에 이황을 찾아뵙고 청량산 청량사에 들어가 독서하였다.<sup>8)</sup> 이때 이황이 칠언율시 2수를 시를 주어 학문을 권면하였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士生今世盡浮沈	선비가 이 세상에 태어나 모두 부침을 하는데
砥柱何人秉此心	어떤 이가 지주 같은 이 마음을 잡겠는가
汝輩渠家眞寶樹	너희들은 어느 집의 훌륭한 자제인가
吾兄宅相豈贏金	우리 형의 집에서 어찌 금을 주었으랴
勢同騏驎初聘足	기세는 준마 같아 막 발을 내달리고
材似梗楠始挺林	재질은 좋은 목재 같아 숲에서 뻗어나네
去入仙山酬逸尚	선산으로 들어가서 좋은 기상 기르면
三冬雪月照胸衿 <sup>9)</sup>	삼동의 눈과 달이 가슴을 비추리라

권호문은 사찰을 강학과 독서의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초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청성산의 白雲庵을 주된 공간으로 이용하였으며, 때로는 5대조의 묘소가 있는 麻甘山 墳庵이나 淸涼寺, 학가산의 山寺 등에서 독서하기도 하였다. 권호문의 어머니는 이황의 둘째 형 李潛의 딸로, 권호문에게 이황은 외종조부가 된다. 그래서 이황은 3구와 4구에서 형 이잠은 20세 외손 권호문에게 황금을 주지 않고 책을 준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니만큼 외조부의 마음을 저버리지 말고 독서에 매진하라는 당부를 하였다. 5구와 6구에서는 권호문이 준마와 같은 씩씩한 기세에 좋은 목재와 같은 자질을 지녔음을 언급하고 있다. 7구와 8구에서는 청량산 청량사에서 독서를 통한 기상을 기르게 되면 마음이 삼동 겨울의 눈과 달처럼 환하게 빛나게 될 것임을 숙지시키고 있다.

또 芝軒 鄭士誠(1545~1607)은 그의 나이 36세 때인 1580년에 艮齋 李德弘(1541~1596), 勉進齋 琴應燠(1540~1616) 등과 함께 청량사에서 『朱子全書』를 강론하기도 하였다.<sup>10)</sup> 年譜에는 수창한 시가 있다고 하였

8) 權好文, 『松巖集別集』 <年譜>, “明宗五年冬, 往拜李先生, 因讀書于淸涼寺.”

9) 위와 같은 글.



으나 그의 문집에는 확인이 어렵다.

### III. 강학의 공간 驚棲寺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에 있는 축서사는 673년에 義湘(625~702)이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고운사의 말사인 축서사에 대한 유가의 기록은 그다지 많지 않다. 불가의 참선을 수행하던 축서사는 17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강학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九思堂 金樂行(1708~1766)은 축서사가 삼계서원 소유의 사찰로 삼계서원 소속 3~4명의 노비가 이 절을 수호한 적이 있었다고 하였으며,<sup>11)</sup> 西山 金興洛(1827~1899)은 松阜 權靖夏(1806~1892)가 1842년에 축서사의 松生齋에서 학업을 익혔다고 하였다.<sup>12)</sup> 축서사를 강학 공간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인물은 川成四老이다. 訥隱 李光庭(1674~1756)은 17~18세기 봉화의 유학자인 荷塘 權斗寅(1643~1719), 蒼雪齋 權斗經(1654~1725), 龜崖 李琬(1650~1732), 茅山 李棟完(1651~1725)을 川城四老로 지칭하였다.<sup>13)</sup> 천성사로가 축서사를 노래한 것은 대략 14수 정도이다. 龜厓 李琬(1650~1732)이 7수, 창설재 권두경이 3수, 모산 이동완이 2수, 하당 권두인이 2수의 시를 남겼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18세기 영남의 문장가인 높은 이광정이다. 이광정은 4수의 시를 남겼고, 權思潤(1732~1803) 1수, 權正忱(1710~1767)이 2수이다.

10) 鄭士誠, 『芝軒先生年譜』, “八年庚辰(公三十六歲), 冬, 遊清涼寺, 與李良齋琴勉進, 講論朱子全書.”

11) 金樂行, 『九思堂集』 권8, <記驚棲行>, “方爲三溪山長, 而驚棲乃三溪屬寺也. 彼時院僕, 以其私往留寺中者三四人, 苟欲取之, 不患無力勢.”

12) 金興洛, 『西山集』 권17, <松阜處士權公墓誌銘>, “壬寅冬, 做業於松生齋舍, 聞先公患報而歸.”

13) 李光庭, 『訥隱集』 卷13, <茅山李先生墓誌銘 并序>, “先生與荷塘權公斗寅·蒼雪齋權公斗經·龜厓李公琬, 俱爲忠定公內外孫, 以道義相從, 文章德業, 俱爲遠近所稱慕, 世以爲川城四老.”

가장 많이 남긴 구애 이완의 축서사 시 중에 한 편을 살펴보기로 한다.

清和四月綠陰舒	청화한 사월이라 녹음이 짙어지는데
正好山窓讀古書	산사에서 옛 서책을 읽으니 정히 좋네
世上許多男兒事	세상에는 남자가 해야 할 일이 많으니
諸君且莫玩居諸 <sup>14)</sup>	그대들은 장차 세월만 보내지 말게나

이완은 축서사에 기숙하고 있는 成后寅 등에게 남자로서 세상에 할 일이 많으니 세월만 보내지 말고 독서하기 좋은 계절에 부지런히 학업에 매진하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한 편의 시를 통해 노래하고 있다. 성후인은 溪西 成以性(1595~1664)의 증손자이다.

권두경은 59세의 나이인 1711년에 축서사 松生齋舍에서 독서하는 아들 權謩(1690~1751)와 權莆(1681~1715)에게 두 수의 시를 부치면서 학업을 익힘에 촌음도 아끼라는 당부를 하게 된다. 이때 권모는 22세였고, 권보는 31세였다.

少年山寺一燈深	젊은 시절 깊은 산사에 등불 하나 밝히고
記取陶翁勉學心	학문을 권면하던 도옹의 마음을 기억하거라
老我無成空晚悔	이룬 것 없이 늙어버린 나의 때늦은 후회는
虛拋青鬢好光陰 <sup>15)</sup>	젊은 시절 좋은 세월을 허비한 것이니라

1구와 2구는 이황의 시 “젊은 시절 산사에서의 즐거움을 가장 좋아하노니, 푸른 창 깊은 곳에서 등불 하나 밝히었네.[最愛少年山寺樂 碧窓深處一燈明]”를 말한다. 서애 류성룡도 이 시를 외우며 산방에서 독서하는 자제들을 권면하였다. 이황은 또 자식을 경계하는 편지를 보내어 “집에 있으면 늘어져서 공부를 더욱 폐하게 된다. 뜻이 독실한 벗과 함께 빨리 책 상자를 지고 절로 올라가 부지런히 애써 독서하거라. 지금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으면 손살같은 세월은 한번 가면 뒤쫓기 어려우니라.<sup>16)</sup>”라

14) 李琬, 『龜厓集』 권1, <驚棲寺示讀書生成后寅輩>.

15) 權斗經, 『蒼雪齋集』 권5, <兒子謩與莆姪 讀書松生齋舍 寄二絕(辛卯)>.

고 하였다. 이어지는 시를 살펴보자.

僧房聯榻洞天深	함께 공부하는 승방이 깊은 골짜기에 있어서
卷裏工程好攝心	책 속에 묻혀 지냄이 마음 다잡기 좋다네
遲暮看書如漏器	노년의 독서는 물 새는 그릇과 같은 꼴이니
青春珍重惜分陰	청춘을 소중히 여기며 촌음도 아끼거라

인용시는 勸學詩의 성격이 짙다. 마치 송나라 朱熹의 「偶成」 시에 ‘소년은 늙기 쉽고 학업은 이루기 어렵나니, 촌음의 시간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권학시를 연상케 한다. 권두경은 나이가 들어서 독서를 하면 그릇이 깨져서 물이 새는 것처럼 금방 잊어버리니 젊은 시절에 시간을 아껴서 학업에 몰두하라는 의미를 시 한 수에 담아 노래하고 있다. 권두경은 또 시의 의미를 첨가하여 “나는 이제 늙었다. 비록 책을 손에서 놓지는 않고 있지만 새는 그릇에 물을 담는 것과 같아서 방금 본 것도 바로 잊어버리니 젊은 시절에 부지런히 읽지 않은 것이 한스럽다. 그러므로 너희들을 위해 이를 면려하노라. 너희들이 오늘 혹 범범하게 들을 수 있겠지만 늙게 되면 바야흐로 내가 오늘 말한 뜻을 알게 될 것이다.”<sup>17)</sup>라는 당부도 하였다.

젊은이들에게 학문을 권장하는 속어인 ‘漏器盛水’는 이황에게서 비롯되었다. 이황은 李湛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한밤중에 촛불을 켜 놓아도 촛불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새는 그릇에 물을 채워도 물이 새고 나면 흔적이 없는 것과 같다.”<sup>18)</sup>라고 하였다.

한편 이광정은 1733년(영조9) 2월 5일부터 2월 21일까지 16일 동안 봉화 문수산 아래 축서사에서 공부 모임인 文會를 열고 제자인 權正忱, 李重光, 洪復休 등과 함께 강학을 하고 시문을 지었다. 이광정이 이때

16) 같은 글, “在家悠悠, 尤爲廢學. 須速與篤志之友, 負笈上寺, 勤苦讀書. 今不勤做, 隙駟光陰, 一去難追.”

17) 같은 글, “吾今老矣. 雖書不去手, 如漏器盛水, 過眼輒忘, 恨不少年勤讀, 故爲爾曹勉之. 爾曹今日猶或泛聽, 至晚暮方知吾今日意也.”

18) 『退溪集』 권11 「答李仲久」, “黑夜秉燭, 燭轉無見, 漏器盛水, 水去無痕.”

지는 시는 『눌은집』 권3 <文山文會>라는 詩題 아래 <次權子剛>, <次李平仲(重光)講榻見懷之作>, <洪孝述(復休)欲檢家事先歸 用平卿韻却寄>, <通讀將罷 以驚棲文會分韻各賦 得驚字> 등 4수가 실려 있다. 먼저 문회를 열게 된 시기와 취지에 대해서 이광정의 발언을 들어보기로 한다.

문수산에 머문 것은 丁巳(2월 5일) 春分日부터 癸酉(2월 21일) 清明日까지 모두 16일이다. 제군들이 간혹 때때로 가정으로 돌아가기도 하여 합석해서 講說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독서하던 여가에 간혹 사물로 인하여 흥을 담아 시를 짓지 않을 수 없었고, 시 약간 편과 「通讀說」을 수록하였다. 대개 제군들의 지향이 어떠한지 시험하려 하였으나 제군들이 말하는 바가 또한 스스로 늘어놓기만 한다면 자신이 체득하여 실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古人の 경계를 범하는 것이다. 나 또한 推重을 받고 뽐낸 적이 많았지만 가져다가 남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제군들이 진실로 쉽게 말한 것을 스스로 뉘우치고, 나 또한 눈을 가리고 보려고 하지 않았다. 돌아보건대 다만 근세의 선비 중에서 이러한 학문에 뜻을 둔 사람이 진실로 적어서 염려스럽다. 그러나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바가 애초에 현명하고 어리석은 차이를 두지 않아 옛사람들의 말을 이해하고 문장을 지을 수 있었으니, 또한 잡박하고 혼탁한 기운만을 온전히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고서를 토론하고 의리를 담론할 때 두렵게도 부끄러움이 일고 개탄하며 뜻을 두지 않은 적이 없었다. 진실로 이러한 마음을 보존하고 배양하며 이러한 말을 실행하고 확충할 수 있다면, 어찌 고인과 같아지지 않겠는가? 지금 제군들이 스스로 기약하고 남들에게 기약하는 것은 진실로 경솔한 듯하지만 이로 인해 그 말을 실천하면 군자가 되고, 그 말을 실천하지 못하면 앵무새가 될 뿐이다. 우리 영남은 예로부터 鄒魯라고 불렸으나 불행하게도 선배들이 세상을 떠난 뒤로 한 사람도 감히 이 일을 담당한 이가 없었다. 또한 근세에 이른바 학자들은 입으로만 이치를 말하고 先儒의 학설을 주위 모으기만 한다. 그래서 理氣의 가장 미묘하여 알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에서 한바탕 중첩하여 말들을 늘어놓은 듯했다. 혹은 한낱 사적인 뜻을 허황되게 늘어놓고 억지스러운 말로 예단하여 선배들을 능멸하려 하였고, 심지어 몸소 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도리어 하루라도 힘써 하려고 하지 않으니 이는 세상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속임이 또한 심한 것이다.<sup>19)</sup>

19) 李光庭, 『訥隱集』 권6, 「文山文會錄後序」, “文山留棲, 自丁巳春分日, 至癸酉清明日, 凡十有六日, 諸君或時還往家庭, 其合席講說者無幾, 讀書之暇, 或因物寓興, 不能不發之於詩, 收錄凡若干篇通讀說, 蓋欲試諸君志向之如何, 而諸君所言, 亦自鋪張, 不唯自己體行之難犯古人之戒, 其於僕, 亦多推借誇詡, 有不可持以示人者. 諸君固自悔其言

이광정은 문회를 열게 된 목적이 제자들의 학문에 대한 지향점을 알기 위해 마련하였다고 자술하였다. 그러면서 말의 실천을 강조하였는데, 입으로만 알기 어려운 이기의 이치를 언급한 채 실천하지 않는 말은 앵무새를 흉내내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또 하루라도 실천에 힘쓰지 않으면 자신을 속임과 동시에 세상을 속이는 결과를 낳게 됨을 역설하였다.

文會의 강독 내용은 『大學或問』의 格物致知와 誠意 등의 장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의미를 궁구하는 것이었다. 이광정은 제자들에게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경솔하게 말하지 말고 자기에겐 절실하고 내실 있는 공부에 힘써서 자기의 말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sup>20)</sup>

문회에서 읊은 장편의 시 <통독한 뒤에 문회를 끝마치려고 할 적에 ‘취서문회’로써 운을 나누어 각자 지움에 ‘취’ 자를 얻다>를 살펴보기로 한다.

文山西北峙	문수산 <sup>21)</sup> 의 서북쪽 우뚝한 봉우리
穴籬傳靈鷲	영취산 단혈에 봉황이 산다 하네
中藏小蘭若	그 속에 작은 암자가 들어 있고
窈窕林壑秀	깊숙한 숲 골짜기 빼어나네
平臨竹溪源	죽계 물줄기를 내려다보다가

之易，而余亦掩目而不欲觀。顧第念近世士子之有志於此學者固少，然其天之所與我者，初無賢愚之間，而能解前言綴文詞者，又不啻全稟得駁濁之氣，是以其於討論古書，談說義理之際，未嘗不惕然發矇，慨然有志，苟能存是心而培養之，實其言而擴充之，則何渠古人之不若哉？今夫諸君之所以自期期人者，誠似率易，然因是而踐其言，則爲君子，不能踐其言，則鸚鵡而已。吾嶺舊有鄒魯之稱，不幸先輩淪沒，無一人敢擔當此事者。又近世所謂學者，騰理於口舌，掇取先儒之說，於理氣最微妙難知難言處，類一場架疊說去，或自扭捏一箇私意，臆說攙斷，便欲凌跨前輩，而至其躬行踐履上，却不肯一日用力。此不但欺世，而其自欺也亦甚矣。”

20) 같은 글, “僕與諸君却於或問格致誠意等章，輒復三復致意焉者，亦是之懼焉。諸君誠懼言之輕發，而已出者不可復吞，蓋亦因是而益加切己近裏之工，以無媿其言乎？若僕鼎器已敝，無望於進步，亦欲因諸君互相責勵，不遂爲小人之歸，是亦近死者之幸也。”

21) 文殊山 :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에 있는 산으로, 해발 1,206m이다. 산이 독수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생김새라 하여, 독수리의 부리와 같이 지혜가 날카롭고 뛰어난 문수보살의 이름을 따 문수산이라 했다 한다. 산중에는 鷲棲寺가 현존하며, 中臺寺, 棲碧寺, 控碧庵 등 많은 절터가 있다.

坐數小白岵  
群巒如蟻垤  
縷脉眼底皺  
奇觀不出戶  
雲物坐來奏  
偶攜媚學子  
半月閒宿留  
經書細討論  
疑義迭講究  
聖謨日親炙  
滋味逾飲酎  
...(중략)...

拓牕迭嗟歎  
和韻占數句  
大抵爲學要  
循序進不疚  
道理在眼前  
平正無嵌竇  
動靜各有宜  
豈必常張殼  
徐當講論已  
更欲窮山腴  
攀援雖辛苦  
舉足要勿驟  
高高無不躋  
遠遠行將就  
乾端與坤倪  
軒豁逢左右  
纖翳四望盡  
天風滿懷袖  
豈如南山遊  
顛僵退又復  
諸君幸相念  
前行莫遑逗<sup>22)</sup>

앉아서 소백산 봉우리를 세어보니  
올망졸망 산봉우리 개미집과 같고  
이어진 산맥은 눈 밑의 주름 같네  
좋은 경치는 문밖을 나가지 않아도  
온갖 경물들이 한곳에 모여 있네  
우연히 훌륭한 학생들을 데리고  
보름 동안 한가로이 유숙하였네  
경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토론하고  
의문스러운 뜻은 번갈아 강구하였지  
성인의 계책을 날마다 직접 대하니  
그 맛이 술 마시는 것보다 더 좋네

창문 열고 번갈아 탄식하고  
화운하여 몇 구절을 읊조리네  
대저 학문을 하는 요체는  
순서대로 나아가야 차질이 없나니  
이치가 눈앞에 놓여 있는 듯이  
공평하고 정대해야 빈틈이 없다네  
동정은 각각 마땅함이 있나니  
어찌 꼭 늘 활시위를 당기랴  
강독과 토론이 모두 끝나게 되면  
다시 산속 끝까지 둘러보고자 하네  
더위잡고 오르기 힘들더라도  
발을 너무 급히 떼지 말라  
아무리 높아도 오르지 못할 곳은 없고  
아무리 멀어도 걷고 걸으면 도착하리라  
하늘 끝과 땅끝이  
탁 트임을 만나게 되리라  
사방의 티끌이 죄다 걷히니  
바람이 소매 가득히 불어오네  
어찌 남산의 유람에서  
넘어져서 퇴보함을 또다시 반복하랴  
제군들은 부디 이를 유념하여  
머뭇거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광정 일행은 16일간 축서사에 머물면서 경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토론하며 의문 나는 뜻은 서로 번갈아 강론하고 연구하였다. 책을 통해서 날마다 성인의 계책을 접하는 것이 맛난 술을 마시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하였다. 이광정은 강독과 토론이 끝나면 遊山을 하였다. 이는 이황의 ‘讀書가 遊山과 같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학문적 토론이나 강학 활동이 끝나면 산을 찾아서 휴식과 사색을 취하게 되는데, 유산의 과정에서 또 다른 생산적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훌륭한 저작물이나 창의적 저서 창출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司馬遷이 천하를 유람하면서 『史記』라는 대작을 낳은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 IV. 수양과 수계의 공간 覺華寺

각화사는 1134년(고려 인종 12)에 高僧 戒膺이 직접 창건한 사찰이다.<sup>23)</sup>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한 태백산 사고를 수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봉화의 유서 깊은 사찰로 널리 알려져 있다. 『大東地志』에는 塔源閣·實錄閣·史庫가 모두 각화사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24)</sup>

각화사 또한 독서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영주의 선비 斗庵 金若鍊(1730~1802)은 그의 나이 27세 때인 1756년 2월 9일에 각화사에 우거하던 늙은 이광정을 찾아뵙고 『맹자』, 『주역』, 『서경』, 『주자서』 등에 대해서 듣기도 하였다.<sup>25)</sup> 이때 이광정은 나이가 83세로 타계하기 직전에 각화사에 머물렀다가 2월 11일에 道淵書院으로 거소를 옮겼다. 또 안동의 선비 愼庵 李晩懣(1815~1874)은 1852년에 각화사에서 원근의 선비들과 강학하였다.<sup>26)</sup> 그리고 청송도호부사를 지낸 19세

22) 李光庭, 『訥隱集』 권3 <通讀將罷 以鷺棲文會分韻各賦 得鷺字>.

23) 『高麗史』 참조.

24) 『新增東國輿地勝覽』 25권 <奉化縣> 조 참조.

25) 金若鍊, 『斗庵集』 권3, <謁訥隱先生日錄> 참조.

26) 李晩懣, 『響山集』 권18, <族兄啓功郎繕工監假監役崑后公家狀>, “壬子自清涼溯鷺湖,

기 봉화의 학자 歸隱 李敎英(1833~1895)은 각화사에 들어가서 『주역』의 <繫辭傳>을 천 번 읽고, 그것을 외우고 베껴 쓰기를 각각 천 번씩 하였다고 한다.<sup>27)</sup>

그러나 이들 세 사람이 각화사에서 독서와 관련하여 노래한 한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장에서는 독서나 강학이 아닌 수양과 修穧의 중심을 두어 살펴보기로 한다.

각화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노래한 이는 西厓 柳成龍(1542~1607)이다. 이후 鑑湖 呂大老, 敬菴 盧景任(1569~1620), 溪巖 金垚(1577~1641) 등과 같은 제자들과 立齋 姜再恒(1689~1756), 俛宇 郭鍾錫(1846~1919) 등 후대의 문인학자들도 이곳에 방문하면 으레 류성룡이 지은 운자에 맞춰 노래하게 된다. 각화사에 대한 한시는 청량사와 축서사에 비해 다소 많이 조사되어 표로 정리하는 바이다.

순번	서명	기사	저자	생물년도
1	西厓集	除夕 在覺華寺東庵 偶題	柳成龍	1542~1607
2	鑑湖集	覺華寺 次柳西厓(成龍) 題敬天上人詩軸韻	呂大老	1552~1619
3	鑑湖集	覺和寺述懷	呂大老	1552~1619
4	鑑湖集	覺華寺 次西厓韻	呂大老	1552~1619
5	鑑湖集	覺華寺夜坐詠懷 奉呈西厓	呂大老	1552~1619
6	鑑湖集	覺華寺 次西厓韻	呂大老	1552~1619
7	磬漢集	同呂鑑川遊覺華寺	孫起陽	1559~1617
8	敬菴集	覺華寺 次呂義城(大老).	盧景任	1569~1620
9	溪巖集	蓮仙臺在覺華寺	金垚	1577~1641
10	溪巖集	覺華寺	金垚	1577~1641
11	忘窩集	覺華寺 贈同行	金榮祖	1577~1648
12	忘窩集	覺華寺 步阿字韻	金榮祖	1577~1648
13	遜愚集	病後 遊覺華寺	洪錫	1604~1680
14	西浦集	覺華寺見菊花	金萬重	1637~1692

入太白之覺華寺, 與遠近同志, 講一句而罷.”

27) 李晩燾, 『響山集』 권16, <通訓大夫行靑松都護府使兼安東鎭管兵馬同僉節制使歸隱李公行狀>, “服闋發鄉解, 入覺華讀繫辭千遍, 作與寫各千.”



15	損窩遺稿	覺華寺 送友人 次谿谷集中韵以贈	崔錫恒	1654~1724
16	蒼雪齋集	覺華寺雨中 寄東齋諸友	權斗經	1654~1725
17	寓庵集	陪瑯源錄奉安使 上覺華寺 和僧軸詩	南九明	1661~1719
18	希菴集	覺華寺 再疊酬成昌使君見和	蔡彭胤	1669~1731
19	北軒集	對菊 記西浦先生覺華寺詠菊詩 感賦	金春澤	1670~1717
20	怨菴集	到覺華寺	申靖夏	1681~1716
21	退漁堂遺稿	覺華寺 次申正甫靖夏韻 贈倫上人	金鎮商	1684~1755
22	瓢陰集	入覺華寺	權錫揆	1689~1754
23	立齋遺稿	覺華寺南樓 別金文遠	姜再恒	1689~1756
24	立齋遺稿	灘翁曾有書約會覺華寺 未有期日 余適出外 灘翁來 余歸家見邀章 不勝悵然 步其韻以寄	姜再恒	1689~1756
25	蒼巖集	覺華寺	金尙彩	1710~?
26	平庵集	讀書覺華寺 嫌其深僻 移棲樂庵	權正忱	1710~1767
27	平庵集	宿覺華寺 又疊前韻	權正忱	1710~1767
28	下枝遺集	遊覺華寺	李象辰	1710~1772
29	磨巖集	覺華寺	趙進道	1724~1788
30	霞溪集	覺華寺月夜	李家淳	1768~1844
31	心庵遺稿	覺華寺 讀華嚴蓮華二經	趙斗淳	1796~1870
32	櫟菴集	覺華寺 次再從祖樾韻	姜晉奎	1817~1891
33	靖窩集	同鳳城高使君(永喆) 遊覺華寺	姜鎔	1846~1934
34	俛宇集	覺華寺	郭鍾錫	1846~1919
35	俛宇集	姜公溥游覺華寺 余因往寒水亭 公溥歸示游山諸作 且用一律求和 深恨高游之不與同 率爾奉次	郭鍾錫	1846~1919
36	二山集	次覺華寺會集韻	姜舜元	1850~1943
37	忍庵集	甲申閏四月 與族叔 宋仲禮 姜景毅 遊覺華寺 登月影樓	權相圭	1874~1961
38	石堂集	丁卯端陽日 同諸友 遊覺華寺	權相經	1890~1958
39	謹庵集	覺華寺史庫 懷古	邊德粹	1898~1928
40	守窩集	覺華寺有感	朴世經	1902~1965

먼저 서애 류성룡이 각화사를 노래한 한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절벽을 감싼 개울을 따라 오솔길이 나 있고  
구름 긴 숲속은 사찰을 깊이 보호하고 있네

繞壁沿溪細徑斜  
雲林深護梵王家

창가의 맑은 빛은 남은 눈에 밝게 빛나고	一窓霽色明殘雪
천 리 멀리 산에는 저녁노을이 흩어지네	千里遙岑散暮霞
세속의 삶과 죽음은 꿈과 같고	塵世去來如夢幻
인생의 이합은 바람 모래와 같구나	人生離合似風沙
안심법을 배워서 터득할 수 있다면	若爲學得安心法
우화등선도 자랑할 것이 못되리라	羽化登仙不足誇 <sup>28)</sup>

인용시는 각화사를 노래한 최초의 것이다. 류성룡은 1598년 12월 5일(병진)에 어머니를 뵈기 위해 봉화 道心村을 찾았다가 이곳 각화사에 들렀다. 류성룡의 어머니 안동김씨는 임진년(1592) 난리를 피해 류성룡의 형 겸암 류운룡과 함께 도심촌에 우거하고 있었다. 류성룡은 정인홍 등의 政敵들 때문에 정치에 혐오를 느껴서 국왕 선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계시는 봉화로 歸觀하였다. 류성룡이 이곳에 도착한 다음 날 관직이 삭탈되기에 이른다.<sup>29)</sup> 류성룡은 각화사 동쪽 암자에서 불가의 이치를 노래하였다. 특히 자신의 마음을 7구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안심법은 사람을 편하게 하는 불교 최고의 경지인 ‘安心法門’을 가리킨다.<sup>30)</sup> 류성룡은 불가의 안심법을 배워서 터득할 수 있다면 도가의 羽化登仙보다 더 낫다는 말을 하면서 각화사를 수양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동행한 이들이 呂大老, 盧景任, 孫起陽 등이다. 이 가운데 여대로가 류성룡의 시에 차운한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28) 柳成龍, 『西厓先生別集』 卷1, <除夕 在覺華寺東庵 偶題>.

29) 柳成龍, 『西厓先生年譜』 卷2, <年譜>, “十二月丙辰, 省大夫人于道心村. 村在太白山下. 丁巳, 削奪官職.”

30) 중종 선종의 2祖 慧可가 初祖인 達磨에게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니 스승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我心未安 請師安心]” 하자, 달마가 “그 마음을 가지고 와라. 너에게 편안함을 주겠다.[將心來 與汝安]” 하였는데, 혜가가 한참 뒤에 “그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覓心了不可得]”라고 하니, 달마가 “내가 너에게 이미 안심의 경지를 주었다.[吾與汝安心竟]”라고 했다는 고사가 있다. 『景德傳燈錄3』

바위를 두른 오솔길이 한 지역에 나 있고	徑繞岳腰一帶斜
두꺼운 얼음을 밟고 지나 사찰에 이르렀네	層氷踏盡到禪家
떠 있는 산은 눈을 맞아 멀리 옥처럼 솟았고	浮岑得雪遙抽玉
새는 해가 구름을 속여 저물녘에 노을이 비치네	漏日欺雲晚暎霞
만고의 세월은 번개처럼 빨리 지나고	萬古光陰翻似電
백년의 신세는 모래보다 하찮은 것이네	百年身世藐於沙
고요한 절간에 있으니 속세 생각 저절로 사라지고	靜中自有超塵想
형상 밖의 고상한 얘기는 자랑할 것이 못된다네	象外高談不是誇 <sup>31)</sup>

2구와 3구에서 여대료가 각화사를 방문한 시기가 겨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세월은 번개처럼 빨리 지나가므로 백년을 못사는 속세에서 너무 아등바등하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다짐을 결속함과 동시에 속인들에게는 무언의 아우성을 외치고 있다. 무상무념의 상태에 들게 하는 각화사의 분위기는 속세의 잡된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는 수양 그 자체의 공간인 것이다.

다음은 창설재 권두경의 시이다.

서재에서 동재를 바라볼 뿐	西寮望東廊
대면하여 말할 수가 없구나	覲面不得語
한번 웃어 뜻을 이미 전하였으니	一笑意已傳
오묘한 진리는 말이 필요 없다네	妙在無言處 <sup>32)</sup>

권두경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재에서 동재를 바라보며 벗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당시 권두경이 머물던 공간이 서쪽에 위치해 있었음은 분명하나, 이 공간이 서원이나 향교의 경우처럼 하급생과 상급생으로 나누어 기숙하던 동재와 서재의 개념은 아닌 듯하다. 3·4구를 보면 석가가 靈鷲山에서 설법할 때 大梵天王에게서 받은 금바라화를 따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였더니 모두 그 뜻을 터득하지 못하였는데, 오

31) 呂大老, 『鑑湖集』 권1 「覺華寺 次西厓韻」.

32) 權斗經, 『蒼雪齋集』 권1 「覺華寺雨中, 寄東齋諸友」.

직 迦葉만이 깨닫고 미소를 지어 석가는 결국 가섭에게 불교의 진리를 전수했다는 拈花微笑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재에 있던 권두경이 동재에 있는 제자들이나 후학들에게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으면서 이심전심의 묘처를 설명하는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혼자나 두세 명 정도가 고요한 공간이 사찰에서 학업을 익힌 예는 허다하나 이렇게 많은 유생들이 불교 공간을 활용한 예는 흔히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는 당시 사찰이 유자들의 점유물이 되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봉화의 유자들이 이 공간을 독서와 강학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권두경은 갑오생과 을미생 제원들은 수계 10주년이자, 갑오년생들의 환갑년인 1714년 12월 13일에 수계를 기념하기 위해 각화사에 모였다. 권두경은 이때의 감회를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백발이 성성한 50세에 수계 하였는데	五旬修契鬢毛殘
환갑 년에 자식들이 수연을 베풀네	周甲兒曹薦壽盤
좌석에선 정히 호성이 비춤을 알고	座上定知弧宿映
산속에서는 설달 날씨 추운 줄을 모르네	山中未覺臘天寒
내년 이 모임에서 몇 명이나 견재할까나	明年此會幾人健
좋은 날 술자리에서 많은 손님 기뻐하네	吉日初筵多客歡
16명의 동갑 계에서 한 명이 죽었나니	二八同庚一遊岱
생전에 술 싣것 마심을 싫어하지 않았다네	生前莫厭酒杯寬 <sup>33)</sup>

3구의 弧宿는 弧星 즉 장수를 상징하는 남극성을 말한다.<sup>34)</sup> 7구의

33) 『蒼雪齋集』卷6, 「甲午乙未周甲宴席上作」. 첫 번째 수.

34) 남극성은 수명을 주관한다는 별 이름으로, 老人星 또는 南極老人이라고도 한다. 『사기』권27 「天官書」에 “狼星을 따라 남쪽으로 대지에 가까운 큰 별이 하나 있는데, 남극노인이라고 한다. 노인성이 나타나면 정치가 안정되고 나타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狼比地有大星，曰南極老人。老人見，治安；不見，兵起。]”라고 하였는데, 張守節의 正義에 “노인성은 弧星 남쪽에 있으며 일명 南極이라고도 한다. 임금이 장수하는 징험이다.[老人一星，在弧南，一曰南極，爲人主占壽命延長之應。]”라는 내용이 보인다.

‘遊岱’의 ‘岱’는 ‘岱宗’으로 泰山을 가리킨다. 원래 대종은 天帝의 손자 이름으로 인간의 영혼을 주관하는 인물이니, 결국 ‘태산에 유람을 간다’는 것은 대종의 부름을 받아 가는 것으로 죽음을 의미한다. 삼국 시대 建安七子 중 한 사람인 劉楨이 쓴 「贈五官中郎將」의 “岱宗에 유람 가서 다시는 친구를 못 볼까 늘 두렵다.[常恐遊岱宗 不復見故人]”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것인데, 유정이 병들어 위독할 때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여 한 말이다.<sup>35)</sup> 여기서도 김세경의 죽음을 비유한 것이다. 이들의 수계는 3 일동안 이어졌고, 모인 사람들은 노소를 합쳐 80여 명이었다고 한다.<sup>36)</sup>

갑오년 을미년 두 해 사이에 태어나서	靑馬靑羊兩歲生
백발에도 본마음 간직하자고 십 년을 맹약했다네	素心素髮十年盟
예전 노닐 때보다 한 사람 적은 것이 길이 한스러운데	舊遊長恨一人少
이 모임은 도리어 자제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네	此會還從諸子成
환갑을 맞은 얼굴들은 고령을 바라보는데	周甲容華者向耄
동갑내기들의 마음은 형제간처럼 우애롭다네	同庚情味弟兼兄
우리들의 멋진 모임 이웃 고을에서 부러워하는데	吾儕勝事鄉鄰羨
백 살이 되려면 몇 번이나 모여야 할까나	待到期願幾度行 <sup>37)</sup>

6구의 촌는 60세이고 耄은 80세이며, 8구의 期願은 100세를 일컫는다.<sup>38)</sup> 갑오생과 을미생이 계 모임을 결성할 적에는 10년 동안 함께 할 것을 맹세하였는데, 환갑을 맞은 나이에 벌써 한 사람이 고인이 되었기에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백 살이 될 때 몇 명이나 남아있을지에 대한 자조 섞인 언급을 하고 있다. 우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35) 『文選』卷23 「贈答」.

36) 『蒼雪齋集』 권6 「甲午乙未周甲宴席上作(有序)」, “老少會者八十餘人, 爲三日之遊.”

37) 『蒼雪齋集』卷6, 「甲午乙未周甲宴席上作」. 두 번째 수.

38) 芝峰 李陟光(1563~1628) 또한 『芝峯類說』에서 “사람이 처음 태어나면 영아라고 하고, 3세를 소아, 10세를 동자, 15세를 성동, 16세를 정, 20세를 약관, 30세를 장, 40세를 강, 50세를 애, 60세를 기, 70세를 모, 80세를 질, 90세를 황구, 100세를 기이라고 한다.[人始生曰嬰兒, 三歲曰小兒, 十歲曰童子, 十五歲曰成童, 十六曰丁, 二十曰弱冠, 三十曰壯, 四十曰彊, 五十曰艾, 六十曰耆, 七十曰耄, 八十曰耋, 九十曰黃耄, 百歲曰期頤.]”라고 하면서 사람의 나이에 대한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같이 각화사는 계 모임의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玉川 趙德鄰(1658~1737)의 손자인 磨巖 趙進道(1724~1788)는 각화사를 春陽八景<sup>39)</sup>의 첫 번째로 설정하여 노래하였다. 그리고 謹庵 邊德粹(1898~1928), 二山 姜舜元(1850~1943), 守窩 朴世經(1902~1965), 靖窩 姜鎔(1846~1934), 독립운동가인 石堂 權相經(1890~1955) 등 봉화 인근의 문인 학자들은 20세기 중반까지 각화사를 소재로 흥취와 감회를 노래하였으며, 無貳齋 姜晁永(1836~1912)은 각화사 유람기를 서술하기도 하였다. 특이한 것은 서인 노론계 학자이며 『구운몽』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西浦 金萬重(1637~1692)이 각화사에 들러 국화를 보고 느낀 점을 술회하였다는 점이다.<sup>40)</sup>

## V. 나오는 말

위에서 살펴보듯이 봉화 조계종 계열의 현존하는 대표적인 사찰로 청량사, 축서사, 각화사는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도량의 공간에서 조선 중기부터는 유가들의 독서 공간, 강학 공간, 수양과 수계 공간 등으로 변질되어 불교 공간 속에 유교 문화가 공존하게 되었다. 청량사의 경우 한국 유학 종장인 퇴계 이황이 이곳에서 독서한 이후 많은 제자들과 후학들이 으레 찾게 되는 성지가 되었다. 축서사는 비교적 덜 알려진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17세기 이후부터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다가 18세기 들어와서는 높은 이광정이 제자들과 함께 보름간 유숙을 하면서 학문의 대토론허인 文會를 열기도 하였다. 각화사는 조선왕조실록을 보호해야 하

---

39) 조진도가 설정한 춘양팔경은 覺華寺, 道淵書院, 寒水亭, 滄厓亭, 御風臺, 水月庵, 滄浪精舍, 漁隱亭이다.

40) 김만중이 어떤 경위로 각화사에 들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다. 김만중의 「覺華寺見菊花」 시 앞에 시가 예천객사에서 읊은 「體泉客舍」이고, 이 시 뒤에 시가 「奉使嶺南 九月二十五日作」이다. 그러므로 이 시는 1671년 영남에 사신의 임무를 띠고 왔을 때 지은 것으로 보인다.

는 수호자의 임무를 지닌 곳인데, 서애 류성룡이 임진왜란이 종식되던 마지막 시점에 어머니가 우거하던 도심촌에 왔다가 각화사에 들른 이후로 그의 문인들과 후학들이 독서와 수양을 하게 되었고, 창설재 권두경은 이곳에서 계모임을 열기도 하였다.

안동 지역의 봉정사의 경우는 강학과 독서 이외에 문집 간행과 종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공간을 활용하였는데, 위 세 사찰은 그 기능이 독서와 강학의 교육적인 측면과 수양과 수계를 위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독서와 강학 속에서 지식인들은 이를 내면화하여 생각을 정리한 뒤에 한시라는 문학 장르를 통해 내재된 생각을 발설하여 노래로 승화하였다. 이런 현상은 조선 중기 이후부터 구한말까지 지속되어 나타났고, 지식인들은 불가의 공간을 유가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하여 불교적 수행·의례의 공간인 사찰이, 지역 사대부와 사족들에게 독서·강학·수계 등의 방식으로 향유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 이 논문은 2024년 08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08월 27일부터 09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09월 1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1. 원전자료

『文選』, 『景德傳燈錄』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  
權斗經, 『蒼雪齋集』  
金樂行, 『九思堂集』  
金若鍊, 『斗庵集』  
金興洛, 『西山集』  
李棟完, 『茅山集』  
李晬光, 『芝峯類說』  
李琬, 『龜厓集』  
呂大老, 『鑑湖集』  
李光庭, 『訥隱集』  
李晚燾, 『響山集』  
李堦, 『松齋集』  
李玄逸, 『葛庵集』  
李況, 『退溪集』  
鄭士誠, 『芝軒年譜』  
周世鵬, 『武陵雜稿』  
黃俊良, 『錦溪集 外集』

### 2. 논문 및 저서

김현수, 「봉화군 소재 불교사원의 지역적 기능」, 『영남학』 제4호, 경북대학교 영남  
문화연구원, 2003, 117~169쪽  
청량산박물관 엮음, 『청량산, 역사와 문화를 담다』, 2017.



Abstract

## Bonghwa's Temple Singed in Yuga

- With Cheongryangsa, Chukseosa, and Gakhwasa as the center -

Hwang, Man-ki

In this paper, we examine how temples, which are Buddhist spaces, transformed into Confucian spaces, focusing on Cheongnyangsa Temple, Chukseo Temple, and Gakhwasa Temple, which are existing temples in Bonghwa. Confucian scholars would tour these three spaces, internalize them, organize their thoughts, and then sublimate them into songs through the literary genre of Hansi. This phenomenon continued from the mid-Joseon period to the late Joseon period, and intellectuals came to recognize that Buddhist spaces could be utilized as Confucian spaces. As a result, temples, which were spaces for Buddhist practice and rituals, began to be enjoyed by local aristocrats and noble families in the form of reading, lectures, self-cultivation, and group meetings. Cheongnyangsa Temple was the only temple and representative Buddhist space among the many temples and hermitages in Cheongnyangsan Mountain. Since Toegye, the last of the Korean Confucian scholars, read at Cheongnyangsan, it has emerged as a new image, and it has become a sacred place that not only scholars of the Yeongnam region but also scholars of the whole country want to visit at least once. At that time, the poems and prose left by Toegye became the interest of not only his immediate disciples, but also the scholars of Andong and even Yeongnam, and they would stop by here and leave their own poems. Chukseo Temple is where Cheon Seong-sa-ro (川成四老), widely known as a prose writer of

Bonghwa in the 17th century, and Nuleun(訥隱) Lee Gwang-jeong(李光庭), who was revered as the last of the Yeongnam literature in the 18th century, held literary meetings here, providing students with a great opportunity to gain experience and academic depth. Gakhwa Temple had the mission of protecting the Taebaeksan Historical Site, which stored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Therefore, this place was considered very sacred and had a special meaning to scholars of the Joseon Dynasty. Seoae(西厓) Ryu Seong-ryong(柳成龍) practiced asceticism here, and Changseol(蒼雪) Gwon Du-gyeong(權斗經) held gatherings with friends here in his 60th birthday. It is clear that all three temples were used as spaces for reading and studying, but in the case of Gakhwasa Temple, although the number of Chinese poems is greater than that of Cheongnyangsa Temple or Chukseo Temple, works related to reading and studying were not specifically confirmed, so this study focused on works related to asceticism and gatherings.

**keywords :**

Bonghwa, temple, Cheongnyangsa, Gakhwasa, Chukseosa, Cheonseosaro